

# ‘남도한바퀴’ 타고 가을 정취 만끽하세요

### 道, 바다위 비밀정원 ‘고흥썩섬여행’ 등 28개 코스 운영 광주 공동 상품도 운영...주 2회 포층사 등 관광지 경유

전남지역 매력적인 관광명소 곳곳을 버스로 여행하는 ‘남도한바퀴’가 가을을 담은 새로운 코스로 관광객들에게 유혹하고 있다.

전남도는 9월 “가을 남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28개 가을코스를 새롭게 구성해 남도한바퀴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울긋불긋 가을 단풍을 감상할 수 있는 산림과 민간정원, 고즈넉함을 느끼며 걸을 수 있는 사찰코스까지 남도의 매력을 담은 다양한 코스를 1만2천900원부터 시작하는 ‘착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사계절 꽃 피는 바다 위 비밀정원 ‘고흥썩섬여행’ ▲산암사를 거닐며 가을 산사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순천·광양 주말여행’ ▲바다 위 케이블카에서 유달산의 단풍을 즐기는 ‘목포 아찔한 비행’ 코스가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 주요 관광지를 경유하는 ‘전남·광주 공동상품’도 매주 금·일요일 2회 운영한다. 색색의 꽃단지가 있는 ‘광주 호호수생태원’과 역사와 문화를 품은 ‘포층사’를 경유한다.

남도한바퀴는 외지 관광객도 쉽게 이용하도록 광주 유스퀘어에서 출발하

며 KTX 광주송정역을 경유한다. 또한 관광지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설명을 통해 전남 관광지의 역사와 문화를 쉽게 이해하도록 준비했다.

남도한바퀴 가을코스 상품 예약은 누리집 (<http://citytour.jeonnam.go.kr>) 이나 콜센터 (062-360-8502)를 통해 할 수 있다.



‘남도한바퀴’가 남도의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28개 가을코스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사진은 여수 오동도 코스에서 남도한바퀴를 이용하고 있는 관광객 모습. <전남도 제공>

완벽한 나만의 전남 여행을 떠나고 싶다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전남관광플랫폼(JN TOUR)을 이용하면 좋다.

특히 전남관광플랫폼을 내려받아 회원 가입하면 ‘남도 숙박할인 이벤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이벤트는 전남 지역 외 주소지를 둔 관광객에게 숙박 요금을 할인해주는 이벤트다. 전남지역 숙박업소 이용 시 1박 기준 숙박료에 따라 10만원 이상은 4만원, 7만원 이상은 3만원, 7만원 미만은 2만원의 숙박비 할인 혜택이 있다.

또한 전남관광플랫폼에서는 인기 체험상품을 정가 대비 50% 할인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1+1 블루투어 특별행사’를 8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심우정 전남도 관광과장은 “남도한바퀴 가을코스를 통해 전남 구석구석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오는 10월부터는 무안국제공항 입국 중화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글로벌 남도한바퀴’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 김지사,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 격려

### 영광터미널시장 시작으로 광양·화순서 장보기 행사

김영록 전남지사가 추석을 맞아 9월 영광터미널시장을 시작으로 연휴 전까지 광양과 화순 등 전통시장을 잇따라 방문, 시장 상인을 격려하고 장보기 행사를 펼친다.

이는 가파른 물가 상승과 고금리 등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김 지사는 이날 영광터미널시장에서 김 지사는 이날 영광터미널시장에서 물가 관리와 지원 정책을 설명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하고 번창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임을 약속했다. /김재정기자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역특산품을 구매하면서 상인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올해 초에 발생한 광양 서천시장 화재를 거울삼아 화재 취약기에 접어드는 가을철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한 시장 상인들의 자율적 노력을 당부했다.

김영록 지사는 “기록적인 폭염 장기화와 함께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이 활기를 되찾도록 도민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길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김재정기자

## ‘광주시 기술장’ 공모...27일까지 접수

### 중소기업 우수 기술인 대상

광주시는 9월 “지역 중소기업 우수 기술인을 대상으로 ‘2024년 광주시 기술장’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공고일 현재 지역 내 중소기업에서 10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로 신기술 개발 및 품질 관리에서 제안 실적 우수하거나 공정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불량률 절감에 공적이 있는 기술인이다.

광주시는 각 기업체와 업종별 협의회 등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 현장조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5명 이내의 기술장을 선정한다.

평가 항목은 대상자의 개인 역량, 기술 창의 활동, 개선 활동, 사회적 기여도 등 4개 분야이며 선정된 기술자에게

는 기술장패와 분기별 50만원씩 3년간 총 6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올해에는 산업 현장에서 서류 준비 과정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자격 요건 충족 여부 확인과 서류 작성, 발표 자료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기술장 추천을 희망하는 기업은 광주시 누리집 ([www.gwangju.go.kr](http://www.gwangju.go.kr)) 고시·공고에서 기술장을 검색해 제출서류를 내려받아 작성, 오는 27일까지 광주시 창업진흥과 (062-613-3864)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홍나순 창업진흥과장은 “중소 제조업체에 근무하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로 지역 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우수 기술인을 선발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선강기자

## 내년 광주 생활임금 시급 ‘1만2천930원’ 확정

### 월 270여만원 정부 최저임금비 60여만원 많아 전국 최고 수준

광주시는 9월 “최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2025년 생활임금 시급액을 1만2천93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2025년 생활임금은 올해 1만2천760원보다 1.3% (170원) 인상된 금액으로 월 단위 (209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270만2천370원이다.

이는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1만3000원보다 2천900원, 월 단위로 환산하면 60만6천100원 높은 금액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한계를 보

완하고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이 보장되도록 지원하는 임금이다.

2.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지역내 가계 지출, 물가 수준을 고려한 ‘광주형 표준모델’을 적용해 생활임금을 산정했으며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부터 광주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민간 위탁기관의 직접 고용 근로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약 1천700여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광주시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해 회의에서 2017년부터 적용하던 생활임금 산정 기준인 ‘광주형 표준모델’의 개선을 요청했으며, 광주시는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의 연구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광주형 표준모델 개선안은 평균 가구원 수가 3명에서 2명으로, 평균 근로 시간이 월 365시간에서 313시간으로 감소하는 등 최근 통계를 반영했다.

또 주거비·식료품비·통신비·대중교통비·사교육비 등 추가적 생계비 항목에 의료비·비소비지출액을 신설했으며 소비자가 물가 상승을 반영 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신장호 노동일자리정책관은 “광주시는 민선 8기 들어 전국 최고 수준의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번 생활임금액 결정이 노동자의 안정적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공공 부문을 넘어 민간 부문까지 제도가 확산돼 저임금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선강기자

## 전남농업박물관 어린이 체험공간 인기

전남농업박물관이 어린이들에게 소중한 농업의 가치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신설한 어린이 체험 공간과 프로그램에 대한 방문객들의 호응이 뜨겁다.

농업박물관은 지난달 초부터 농경문화관에 어린이 체험 부스를 마련하고 농경문화와 박물관 전경 등 그림 그리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을 그려 제출하면 선별해 연말 그림 전시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농업박물관은 상설전시관 3곳을 모두 관람하고 인증하면 ‘씨앗 새

연필’을 무료로 나눠주는 ‘스탬프 투어’를 진행해 관심을 받고 있다.

실제 스탬프 투어는 시행 1개월 만에 어린이를 비롯한 초·중·고교생 1천여명이 찾은 정도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김용경 농업박물관장은 “최근 박물관 활성화 차원에서 농경문화관에 어린이 체험 공간을 별도 신설해 호응을 얻고 있다”며 “전남농업박물관이 ‘농도’ 전남을 대표하는 전국 최고 농업박물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양시원기자



lucky blossom | 72.7x60.6cm | Acrylic on Canvas | 2023

## 2024 Art Bank ‘예술을 선물합니다’

2024. 9. 27. (토) - 10. 6. (일) | 광주 동구 ACC디자인호텔 1층 갤러리 작품판매전

**부귀와 행운의 상징인 복돼지에 빛대어 행복한 유토피아를 꿈꾸는 작가**

즐거움 돼지와 ‘꽃 중의 꽃’으로 불리는 모란(牡丹) 전통적으로 돼지는 복(福)과 다산(多産)을 상징한다. 알록달록한 꽃 속의 돼지들을 보면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사계절을 평온하게 보냈으면 하는 바람, 작고 귀여운 복돼지들이 복을 가득 불러오길 소망한다.

하늘에서 뚝이 떨어지고, 복주머니 안에 은금보화가 넘쳐나는 모습이 마치 우리가 꿈꿔오거나 바라는 모습일 수도 있다. 부유한 삶을 즐기는 돼지들, 풍요로운 삶을 즐기는 복돼지의 모습을 통해 행복을 느끼고 따뜻한 그림으로 다가갈 바래낸다.

**개인전** 11회 (광주, 인천, 서울)

**단체전** 50회 (광주, 장성, 해남 등)

**레이저티프로그래** 2021 무등현대미술관 레이저티프작가  
2015 경북문화미술원 레이저티프작가

**수상** 2021 배동신 아동미술제 대상\_문화체육관광부



이 다 에 작가

2012 대동문화재단 2기 입주작가  
2011 광주문화나눔 지하철 메트로레이저티프 작가

| 주최 |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 TV** | 문의 | 광주매일신문 062) 650-2079